

황혼

각본 김태규

#1. 거리 (낮)

푸른빛 하늘, 거리에는 몇몇의 낙엽들이 바람에 나뒹군다.
초가을의 냄새가 난다.
길을 걷어가는 회사원 정장의 30대 남자.
그는 예상치 못한 찬 바람에 어깨를 바짝 움츠린 채 잔걸음으로 이동한다.

#2. 빌라 집 안 (낮)

집 거실 바닥에서 마늘을 까는 60대의 여인.
희미하게 들리는 콧노래.
창을 열어두어 집 내부에는 바람이 스며들어온다.

집 초인종이 울린다.

여인은 무릎을 꿇으며 에구구 소리를 내고 일어난다.
현관으로 간다.
문을 열자, 정장 사내가 들어온다.
들은 거실로 이동한다.

여인: 너 회사는 어찌고?

남자: 아, 오늘 반차 냈어. 볼 일 볼게 있어가지구.

여기 근처여서 일 끝내고 엄마 잠깐 볼까 싶어서 왔지. 왜, 싫어?

여인: 애가, 싫긴? 나야 좋지.

집 거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본 남자.

남자: 아, 엄마는 찬 바람 들어오는데 무슨 창을 이리 열어놔. 감기 걸리게.

창문을 닫는 남자를 바라보는 여인.

여인: 어? 뭐 시원하고 좋구만. 가을 냄새도 나고.

남자, 정장 마이를 벗는다.
자연스레 마늘 까기에 동참한다.

여인: 저녁은? 먹구 가.

남자: 아 아냐. 이따가 진주랑 먹기로 했어서.

여인: 그래? 그래. 그게 좋지.

둘은 같이 마늘을 깐다.

여인: 요새 회사는 안힘드냐.

남자: 어, 할만해. 사람들하고도 친해지고.
여인: 그래? 다행이네. 할만하다니.
남자: 응. 아, 맞다. 엄마.
여인: 응?
남자: 영석이 기억나?
여인: 그 세탁소 하던 부부네 아들?
남자: 어.
여인: 그럼, 당연히 기억하지. 왜?
남자: 개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 자기 고깃집 차렸다고,
언제 엄마 모시고 같이 와라더라. 공짜로 대접한다면서.
여인: 그래? 오호호. 좋네. 거봐. 친구 잘 사겨두니까 이런 일도 다 있구.

시간의 경과.

남자, 아이처럼 웅크린 채로 여인의 허벅지를 배고 누워있다.
남자의 귀를 파주는 여자.

남자: 요 며칠 전부터 자꾸 딸깍딸깍 거리더라고, 귀에서.
여인: (집중해서 대충 응 한다.)

여인, 남자 귀에서 스윽 무언가를 집게로 집어 꺼낸다.
거대한 귀딱지.
징그럽다는 소리를 내는 여인.
남자도 그 크기를 보고 놀라 웃는다.

여인: 깨끗하다. 이제. 뽕 뚫렸다.

여인, 남자의 얼굴을 내려다 본다.

여인: 가만 있어봐라.
남자: 왜?
여인: 여기, 이마에 여드름 하나 난게 있네.
남자: 아 됐어. 짜지 말고 냅둬. 아파.
여인: 안된다. 이거 가만 나뒹면 점 된다!

여인, 면봉으로 이마 여드름을 짠다.

여인: 곧 결혼하는 애가 얼굴이 반들반들 이빠야지. 이러면 쓰나.
남자: 아아...! (여드름 짜는게 아픈듯)
여인: 결혼 준비는 잘 되거나?
남자: 어...? 뭐. 다 돈이지.
여인: 엄마가 좀 보태줄까?
남자: 아이... 됐습니다요.

여인: 엄마도 돈 있다.

남자: 됐어요.

남자, 고민한다.

남자: 결혼이란게, 참 쉬울 줄 알았는데, 뭐가 이리 복잡한지.

여인: 여러 생각이 들지, 원래.

남자: 어. 사실 요새 자주 싸워. 그것땀에. 뭐가 맘에 안드는지 말도 잘 안해.

여인: 다 그런거야. 두 사람이 서로 맞추는거지. 니가 똥고집이긴 하잖니. (웃음)

남자: 참 나! 얼마나 잘하쇼. 누구 좀 만나. 황혼에 혼자 살지말고. 안 외롭게.

여인: 됐어.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져야지. 사람이.

남자, 거실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본다.

남자의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기 자신.

남자: 엄마는... 결혼 할 때 어땀어.

여인: 뭐... 좋았지. 예쁜 드레스도 입고.

남자: 아빠랑은 왜 결혼한거야? 뭐 보고.

여인: 그냥, 좋으니까 결혼했지? (웃음)

남자: 좋았어?

여인: 응.

남자: 난, 아빠 떠올리면... 그냥 흐릿한데. 가끔 미운 감정 들 때도 있고.

여인, 같이 사진을 본다.

남자: 맨날 신문 보면서 담배 피우던 모습만 기억에 남았어. 하나도 안 친했어.

시간의 전환.

과거로 돌아간다.

#3. 어린 시절의 집 (낮)

십대 소년 모습의 남자.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본다.

이마에 여드름이 나기 시작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지 인상을 찌뿌린다.

그리고는 자신의 팬티 안을 들춰 무언가를 확인한다.

찡찡한 표정의 소년.

거실에서 밥먹으라고 부르는 엄마의 음성.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년.

거실 식탁에 소년과 소년의 아버지가 앉아있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말 없이 신문을 읽고있다.

남자의 입술에 걸려있는 타들어가는 담배.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소년은 남자를 어려워하는 눈치이다.

엄마는 부엌에서 음식을 들고와 식탁에 내려놓고 앉는다.

남자가 식탁을 스윽 훑더니, 신문을 접고 수저를 든다.
세 식구가 다 같이 밥을 먹기 시작한다.
거실 한구석에 놓인 낡은 글러브와 야구공.
소년, 음식을 씹다가 입을 연다.

소년: 아빠, 이따가 저랑-

남자: 밥 먹을 때 시끄럽게 말하는거 아니랬제.

소년, 입을 다문다.
엄마는 소년을 본다.

약간의 시간 경과.
식구가 식사를 끝내고 치우는 엄마.

아빠는 티비 뉴스를 본다.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 불황을 떠들어댄다.
말없이 심각한 표정의 남자.
소년은 남자에게 다가간다.

소년: 아빠, 있잖아요. (소곤소곤)

남자, 뉴스에 집중했는지 소년을 신경쓰지 못한다.

소년: 아빠... 아빠...!

남자: 어이 거! 뉴스 보고 있으니까 이따가 말해. (혀를 찬다.)

소년, 기가 죽는다.
털레털레 방으로 걸어가는 소년.

다시 현재로 돌아와,
씬 2와 같이 공간.

#4. 여인의 빌라 집 안 (낮)

남자: 그 때가 막 사춘기 시작할 즈음이라, 아빠한테 묻고 싶은게 많았는데...

여인: ...

남자: 뭐, 이미 옛날 일이라, 이제는 크게 신경은 안 쓴다지만.

여인: 그래.

남자: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라고, 아빠는. 지금까지.

여인: 응.

남자: 그냥, 그래서, 물어본거야. 궁금해서. 엄마는 아빠랑 뭐땀에... 왜 결혼했나.

여인: 그랬구나.

남자: (시간을 보더니) 어... 이제 슬슬 일어나야겠다. 진주 곧 퇴근해.

여인: 그래.

자리를 일어나는 남자,

현관으로 간다.

그 뒤를 따라오는 여인.

남자는 구두를 신는다.

여인: 진주한테 잘 해줘라. 개도 뒤송송할거다. 니가 개 맘을 이해해줘.

남자: 어.

여인: 그리고, 아빠도 용서해라.

남자: 어?

여인: 아빠도 용서해라고. 아빠도 말 못할 뭔가가 있었겠지. 힘들 때 였잖아.

남자: ...

여인: 너가 아버지 맘을 이해해줘. 엄마 봐서라도.

남자: ...

#5. 거리 - 아파트 (밤)

어둑해진 길거리.

남자는 생각에 잠긴 얼굴이다.

전화 통화를 하는 남자.

한 손에는 맥주 캔이 들어있는 봉지를 들고 있다.

남자: 어, 진주야. 퇴근했어? 집 먼저 들어가 있어. 조금 늦을 거 같네. 미안. 금방 갈게.

아파트 복도를 지나는 남자.

어느 문 앞에서 멈춘다.

한참을 망설이는 듯한 남자,

현관문 벨을 누른다.

남자는 문 앞에서 기다린다.

#6. 여인의 빌라 집 안 (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는 여인.

남편과 자기 자신, 그리고 잘 자란 아들.

#7. 아파트 복도 (밤)

잠시 후 천천히 문이 열린다.

나이 든 남성이 문고리를 잡고 밖에 서있는 젊은 남자를 놀란 눈으로 바라본다.
초라한 모습의 늙은 남성. 문 틈 사이로 보이는 지저분한 그의 집 내부.

남자: 아버지... 오랜만이지요?

노인: ... 어...?

남자: 잠깐 술 한 잔 하면서... 아빠랑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노인: ...

약간의 고요함이 흐른다.

노인: 들어온나... 밖에 춥다.

문을 활짝 여는 노인.

안으로 들어가는 남자.

문이 닫힌다.

#8. 여인의 빌라 집 안 (밤)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는 여인.

상쾌한 웃음을 희미하게 띄고 있다.

깊은 숨을 내쉰다.

창문이 닫히며, 화면도 암전된다.

끝